

2013
05



이달의 주요뉴스

인터넷 신문기자 워크숍

제주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담회 개최

인터뷰

손지애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언론중재위원회 NEWS

언론 사람

제155호



언론중재위원회

Contents

- 03 **이달의 주요뉴스**
인터넷 신문기자 워크숍
제주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담회 개최
- 04 **인터뷰**
한국이라는 국경을 넘어 세계로 시야를 넓혀나가야
- 손지애(아리랑국제방송 사장)
- 06 **포토갤러리**
- 07 **위원동정 · 위원회 소식**
- 08 **인문학 산책**
내 마음속 '시간의 집'을 만들어라, 위즈워스
- 09 **신 동의보감**
봄철 산행과 건강한 관절 만들기
- 10 **위원단상**
원초적 본능
- 12 **가족앨범**
가업(家業)처럼 잇게 된 중재위원
- 13 **마이 힐링푸드 테라피**
엄마와 미역국
- 14 **교육이슈기**
언론중재위원회
「제1차 공무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 15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 · 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 · 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 · 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식약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ADR 교육과정 및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 · 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기자 워크숍 개최

● 위원회는 4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신문기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소속기자 24명이 참석했다.

● 오광건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터넷신문은 전통매체인 신문·방송과 더불어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자리 잡았다”며,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언론으로서의 책임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워크숍은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이데일리 신한수 콘텐츠사업 팀장이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인터넷 저널리즘’을 주제로 인터넷뉴스의 소비형태와 유통경로의 변화를 분석하고 인터넷미디어의 발전방향을 탐색해 보았다. 제2세션에서는 위원회 양재규 기획팀장이 익명처리, 공인관련 보도 등 언론분쟁의 주요 법적 쟁점을 조정사례와 판결을 통해 설명했다. 이어 제3세션 ‘중재위원회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은 위원회 권일 중재위원과 인터넷신문 관련 분쟁의 피해구제 절차 등에 관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다. 권일 위원은 언론이 보도의 오류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언론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피해구제에 적극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제4세션에서는 통일교육원 차문석 교수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 위원회는 올해 언론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언론인 워크숍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상, 조정, 중재 등 ADR(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교육과정도 개설,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담회 개최

효과적인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를 당부



● 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제주 지역 주요 언론사 대표를 초청해 ‘지역언론 현황과 언론피해 예방’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위원회측 간담회 참석자는 권성 위원장, 최용호 제주중재부장, 조맹수, 박정숙, 김재원, 강봉훈 제주중재위원이며 언론사에서는 김대우 제주일보 대표이사, 강만생 한라일보 대표이사, 진성범 제민일보 대표이사, 김종배 제주매일 대표이사, 이종화 KBS제주방송 총국장, 김진용 제주MBC 대표이사, 김양수 JIBS제주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 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중재제도와 위원회의 역할에 관해 제주지역 언론사 대표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제주지역 언론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이라는 국경을 넘어 세계로 시야를 넓혀나가야

손지애(아리랑국제방송 사장)

- 월간 비즈니스코리아 기자
- 뉴욕타임스 서울특파원
- CNN 서울지국 지국장
- 제19,20대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공동대변인
- 청와대 해외홍보비서관
-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현)



영어신문 취재기자에서 언론사의 CEO에 오른 20,30대 여성의 변함없는 롤 모델, 한국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는 글로벌 여성리더 아리랑국제방송 손지애 사장을 만났다.

●●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글로벌 여성 리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 친화적인 정책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 일하는 여성으로 현재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여성의 사회진출이 예전보다 늘었지만, 중간직이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그 분포는 확연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맞벌이를 절대적으로 선호하지만, 그것도 아이들의 교육에 방해되지 않을 때까지만 유효한 것 같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자녀 양육과 교육 등으로 인해 사회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현상들은 여성 리더가 개선해야 하는데, 그동안 제 세대의 선배들은 절대적으로 그 숫자가 많지 않아 실천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CEO가 되고 나서는 여성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전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는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 리더가 늘어날수록 일하는 여성들이 중도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건설적으로 발전해 나가리라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 KBS World, YTN World 등의 해외홍보방송과 중복된다는 일각의 평가가 있는데, 아리랑TV는 이들 방송과 어떤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시청 대상을 해외에 포커싱한다는 것입니다. 아리랑TV는 한국인을 위한 채널이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널입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과 한국을 모르는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단순히 한국의 프로그램에 영어자막을 달아 외국에 알리는 단계에서 벗어나 전체 콘텐츠의 90% 이상이 영어를 기본언어로 하여 제작됩니다.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도 다른 두 채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아리랑TV는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외교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아리랑TV에 유입되는 시청자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류콘텐츠에 관심 있는 실질적인 팬층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4월 17일, 인터뷰 일자) 'After School Club'이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방송되는데요, 전 세계의 아리랑TV 시청자를 대상으로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실시간으로 K-Pop을 신청받아 이를 방송하는 것이 기본 포맷입니다. (이날 첫 신청곡은 얼마 전 발매된 싸이의 신곡 '젬틀맨'이었다) 세계 188개국의 시청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생방송 리퀘스트 쇼입니다. K-Pop 팬들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한류콘텐츠를 단순히 소비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로 K-Pop 팬들을 배려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는 K-Pop이 '한국의 음악'에 머무는 단계를 넘어서서 세계의 팬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첫 생방송을 직접 꼼꼼히 모니터링하며 제작진을 격려하고 있는 손지에 사장

●● 아리랑TV의 주 시청대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보도 및 방송내용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내부 시스템을 거쳐 처리하는지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큰 분쟁은 없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적도 없었습니다. 좋게 보자면 그동안 아리랑TV가 잘 해왔다고 볼 수 있겠고,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아직은 저희 방송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작되는 콘텐츠의 대부분이 사회문제에 대한 고발성 기사보다는 한국을 알리는 홍보 기사입니다. 아리랑TV는 한국을 세계에 소개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 항상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도 매일 편집회의에 참석해서 순서나 내용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시청자의 권익 보호라는 과제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초상권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내부 지침 마련이라든지 제작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송콘텐츠를 통한 한국 홍보라는 기본 취지와 전 세계 시청자들의 인권보호 간에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국내 언론사와 미국 언론사는 보도방식이나 내용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사의 한국 지사에서 취재 기자로 근무할 당시, 문화의 차이로 인해 생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CNN에 근무할 당시 데스크에서는 'Foreign'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더군요. 국적 없이 활동하기에 외국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으로 한국을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방송사의 일원으로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길 원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시청자나 고객이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배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제가 요즘 아리랑TV의 기자들에게도 한국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지 말고, 외국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당부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CNN의 시각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관련하여 극도의 긴장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렇게 고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외국언론의 반응인데, 그것은 해외 기자들이 멀리서 이곳까지 날라온 미션, 즉 평범하지 않은 상황을 취재하는 것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Business as usual'(평소와 다른없는 상태)한 태도는 한국인들이 이러한 긴장상태에 익숙해져서 근

본적인 마음가짐에 Downplay(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것)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을 뿐, 그렇다고 해서 사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결론 내릴 순 없겠지요.

●●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CEO가 되어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 채용할 수 있는 자리는 제한되어 있는데 실력이 뛰어난 젊은이들이 아주 많아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지금 당장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간혹 스스로의 가치를 직장에 두

는 경우가 있는데 젊은 세대부터 마음가짐을 달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대기업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특징점을 살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철학이나 역사학 등의 인문학에서 그 해답을 찾기도 하는데, 이는 인생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생각과 발자취, 삶에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시야를 한국이라는 국경을 넘어 세계로 넓히고, 기성세대가 말하는 '좋은 직장' 대신 '나에게 맞는 길'을 마치 숨을 쉬듯이 천천히 찾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 진행 | 손정배 (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최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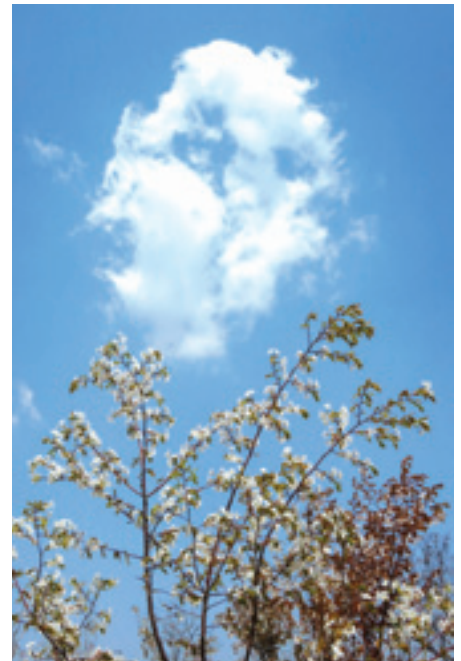
포토갤러리



벚꽃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



봄날을 맞은 여유로운 주말의 산책로



따스한 봄, 푸른 하늘 그리고 흰 구름

류 석 창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

COMMISSIONERS

‘현대 미디어 인터뷰’ 발간



박성희 위원(서울제8중재부,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은 3월 『현대 미디어 인터뷰』를 발간했다. 이 책은 9년 전의 저서 「미디어 인터뷰」를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보강한 것으로 인터뷰의 의미와 역사를 비롯하여 인터뷰 기법 및 전략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장에서는 뉴 저널리즘과 내러티브 리포팅에 관한 풍부한 사례가 추가되었다.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에 관한 토론회 진행 말아



김정택 위원(서울제6중재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4월 24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공공미디어연구소가 개최한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쟁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계명대학교 최우정 교수와 공공미디어연구소 정지정 연구팀장이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재송신 문제’와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착한변호사’ 법조계 첫 가입



장익현 위원(대구중재부, 변호사)은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 사랑의 열매가 주관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198번째로 가입했다. ‘착한가게 캠페인’은 자영업자가 매출액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기로 약정하는 캠페인이다. 사랑의 열매 측은 최근 착한가게의 변호사 버전인 ‘착한변호사’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장익현 위원이 그 첫 가입자가 되었다.

NEWS

위원회 소식

제18대 대선 선심위 백서 발간

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2012.4.23.~2013.1.18. 설치·운영)의 심의 현황 및 제재 사례 등을 수록한 심의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에는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제재결정한 47건의 심의사례와 후보자의 시정요구 4건 등 총 51건의 결정문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정보자료실 간행물 코너에 e-book으로 볼 수 있다.

〈설득 및 수사 기법 월차보고서〉 5월호 발간

위원회는 5월 1일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제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상대방의 유형에 따른 설득의 전략’, ‘난감한 상황에 대처하는 현명한 설득법’, ‘대화와 물음의 수사학’을 주제로 한 내용들이 수록되었다.

사무처 인사(4.22.자)

〈전보〉 수사교육팀장 이수중
홍보팀장 손정배
조사팀 최은진(서울제5중재부 조사관)

ADR기관 사무총장 간담회



위원회는 4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ADR기관 사무총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사중재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 국내 대표적인 11개 ADR기관이 참석했다. 위원회 오광건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조정중재아카데미 교육과정과 언론분쟁사건 처리절차를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업무 현황과 실적,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 위원회는 5월 9, 10일 이틀간 ADR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조정 기법 및 실습’ 등과 같은 ADR기관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ADR기관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내 마음속 ‘시간의 점’을 만들어라, 워즈워스

최효찬
칼럼니스트



서구에서는 17세기 후반부터 ‘그랜드투어’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영국의 귀족 자제들이 엘리트 교육의 최종 완성으로서 일정한 교육을 마치면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 역사적인 유적지나 명승지로 긴 여행을 떠났다. 그게 이른바 ‘그랜드투어(grand tour)’의 시작이었다. 그랜드투어는 귀족이나 명문가의 자제들이 인솔 교사를 대동해 떠나는 단체여행이었고 더욱이 명사들을 방문해 사교나 매너를 배우는 기회여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18세기 말에 이르러 럭셔리한 그랜드투어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이른바 ‘프티투어(petit tour)’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랜드투어, 즉 ‘대여행’에 대조되는 ‘소여행’이 등장한 것이다. 프티투어는 주로 중산층과 그 이하 계층에서 저렴한 여행 비용을 들여 주로 걷거나 마차를 빌려서 이동하며 유럽 각 지방의 대로와 냇가들을 찾아다니는 도보여행이었다. 일부 여행객과 작가, 예술가들은 후미진 길을 걸으며 사상과 영감을 떠올리기도 했다.

프티투어 시대를 연 사람은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1770~1850)였다. 흔히 자연주의 시인으로 불리는 윌리엄 워즈워스는 당시 유행한 ‘그랜드투어’가 아니라 ‘프티투어’로 위대한 시인이 되었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워즈워스는 도보여행을 통해 ‘발’로 시를 쓴 시인이었다. 그 시작은 알프스 여행이었다.

“우리 삶에는 시간의 점이 있다./ 이 선명하게 두드러지는 점에는/ 재생의 힘이 있어/ 이 힘으로 우리를 파고들어/ 우리가 높이 있을 때는 더 높이 오를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쓰러졌을 때는 다시 일으켜 세운다.”(‘서곡’에서)

워즈워스가 스무 살에 알프스 여행을 할 때 보았던 거대한 자연의 한 풍경이 평생 머릿속에 남아 시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곤 했다. 이렇게 기억에 떠오를 때마다 가슴 속에 파고들어 힘을 주는 자연 속의 한 장면을 워즈워스는 ‘시간의 점’이라고 불렀다. 워즈워스는 한때 프랑스혁명으로 인한 혼란에 휩싸이지만 공포정치로 환멸을 느끼며 정신적 위기에 직면한다. 이때 그는 자연으로 돌아감으로써 자연과의 감

응력을 회복하면서 더욱 깊은 인간애에 도달하게 된다.

길잡이를 택해야 한다면/ 떠도는 구름보다 나은 것이 없다./길을 잃지 않을 테니.

이는 그 유명한 ‘서곡(The Prelude)’의 도입부다. 워즈워스 스스로 자전적인 성장을 담았다는 이 시는 1805년에 처음 완성되어 평생 퇴고를 거쳤고 1850년 그가 숨을 거둔 후에야 출판되었다.

워즈워스가 말한 ‘시간의 점’이 소중한 것은 그것이 우리 가슴을 고동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가 걷기를 예찬한 이 유도 여기에 있다. 그 역시 도보여행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뇌리 속에 저장된 시간의 점 덕분에 삶을 재생시킬 수 있었고 그가 쓴 수많은 시로 무수한 사람들에게 재생의 힘을 주었을 것이다.

“나는 계속 걸어갔다./ 그때는 축복에 휩싸여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서곡’에서)

그런데 워즈워스가 말한 ‘시간의 점’은 빅터 프랭클이 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의 다음 구절과 맥락을 같이한다. 유대인인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정신분석학자가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극한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데 가장 도움을 주고 위안을 주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자의 소중한 모습이며, 신앙이며, 괴이한 유머 등이다”라고 한다. 즉, 몇 시간 후에 가스실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처절한 현실에서 그 현실을 견뎌내게 하는 것은 평소에 아내와 나눈 대화의 기억들이라고 한다. 아내의 맑은 모습과 목소리, 미소 등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함으로써 괴로움을 잊는다는 것이다. 봄날 아내와의 꽃구경과 같은 어느 한순간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다면 삶이 위기를 맞을 때 더없이 소중한 기억으로 초대되고 다시 살아날 에너지가 되어준다는 것이다.

지금 내 마음속 ‘시간의 점’이 없다면 편안한 여행이 아니라 불편한 프티투어 혹은 도보여행을 떠나볼 일이다. 우리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재생의 힘이 되는 ‘시간의 점’은 고단한 여정을 통해서 비로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봄철 산행과 건강한 관절 만들기



강준순 과장
인하대병원 정형외과

날씨가 따뜻해지고 겨우내 움크렸던 꽃들이 개화하는 봄에는 산마다 등산객들로 붐빍니다. 등산은 손쉽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운동으로, 심폐 지구력을 향상시키며 에너지 소비가 높아 체지방 감소와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또한 정상에 오르는 성취감과 주변의 경치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사전 지식이나 준비 없이 무작정 산행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부상의 위험성이 클 수 있습니다.

봄철 산행에 앞서 우선 산행일의 날씨를 확인해야 합니다. 봄에는 일교차가 크며 맑은 날씨에 비나 안개가 갑작스럽게 동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소재의 방수, 방온이 가능한 옷들을 준비하며, 기온 저하나 강우에 대비하여 여벌의 옷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겨울에는 인체가 생리적으로 낮은 기온에 적응되며 운동량이 떨어지는 계절이어서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이 저하됩니다. 또한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이어도 산행 코스에는 눈이 녹지 않거나 미끄러운 지면 등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철 산행은 본인의 능력보다 조금 쉬운 등산지와 산행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부상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산행 후 흔히 겪을 수 있는 근육통은 사전 운동 없이 급작스럽게 무리한 근육 사용으로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근육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서히 근육 운동량을 늘려나간 뒤에 본격적인 운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봄철 산행을 계획하면서 사전에 이러한 근육 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봄철 산행 후 근육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근육통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근육에 휴식과 함께 온찜질, 소염 진통제와 같은 가벼운 처치를 시행하면 대부분 후유증 없이 회복되지만,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산행 중 굴곡진 지형을 오르내리며 쉽게 족근 관절의 염좌(발목을 삐거나 접질린 것)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발에 적합하고 발목을 보호할 수 있는 등산화 착용해야 합니다. 족근 관절의 염좌를 가볍게 생각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면 발목의 외측 측부 인대의 손상으로 만성 족근 관절 불안정성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수술

적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발목이 삐거나 붓는 증상이 반복되면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며, 일정 기간의 고정 및 보호와 족관절 인대 강화 및 비골근 운동으로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릎관절 부위의 통증과 함께 종창(붓거나 부어오름)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단순 근육통과 무릎관절 내 이상을 감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증과 종창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며 무릎 관절 운동의 제한이나 무릎 관절 운동 시 걸리는 듯한 잠김 증상 등이 동반될 경우에는 반월상 연골판(무릎관절의 충격을 흡수하는 부위)의 파열 손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중년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관절염이 있거나 과체중인 경우에 무리한 산행을 지속하게 되면 무릎관절 연골의 과도한 부하로 연골 손상이 진행되어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봄철 산행에서 가장 손쉽게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을 통한 준비운동으로 근육의 유연성이 늘어나고 마무리 운동으로 근육의 피로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에는 부드럽고 빠르지 않은 속도로 긴장감이 느껴지는 정도까지 근육을 신전(늘여서 펼침)시켜 줍니다. 근육과 건(힘줄)에 충분한 장력을 가할 수 있도록 20~30초 이상 자세를 유지하며, 통증이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산행 도중 낙상이나 염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선 환부를 부목 등에 고정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손상 정도에 비례하여 주변 연부조직(장기, 근육, 결합조직, 지방, 혈관, 림프관, 관절, 신경을 포함하는 조직)이 붓거나 부어오르기 때문에 얼음 찜질과 더불어 환부를 가슴 높이 이상으로 올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산행을 중지하고 응급 처치 후 전문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초적 본능



김 봉 수 위원
부산중재부
전 부산MBC 보도국장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히말라야를 동경한다. 히말라야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나는 바로 그곳을 다녀왔다. 경이롭고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히말라야의 가파르고 험한 길, 고산병과 추위는 에베레스트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었다. 나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다. 에베레스트는 포근하고 따뜻했다. 그리고 장엄하고 광대했다.

겨울비가 내리는 1월 21일 인천공항을 이륙한 항공기는 8시간 만에 नेपाल의 수도 카트만두에 착륙했다. 다음날 새벽 에베레스트의 전초 기지 루크라행 첫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날씨 관계로 नेपाल 항공기는 결항 또는 연발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우리 일행 9명은 루크라에서 대기하고 있던 포터, 가이드, 주방요원들과 함께 목적지인 칼라파트르(해발 5,560미터)를 향해 열이틀간의 트레킹에 나섰다.

히말라야의 겨울 하늘은 푸르다 못해 옥색이다. 만년설을 머금은 설산은 밝은 햇살로 더욱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히말라야를 다시 걷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나는 기분이 좋았다. 60대라는 나이를 이유로 만류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나는 내년이면 더 나이가 들고 늙어갈 것이다.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다.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고 싶었다.



눈과 구름이 순환하는 곳, 이곳이 히말라야다

산행 사흘째 아침,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해발 8,890미터)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트레이드마크인 깃털 구름을 나부끼며 로체(8,516미터), 출라체(6,440미터), 타보체(6,495미터), 아마다블람(6,812미터) 등 10여 개의 설봉을 거느리고, 나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마다블람[Ama Dablam]이라는 산 이름은 ‘어머니와 진주목걸이’라는 뜻이며, 마차푸차레, 마테호른과 함께 세계 3대 미봉(美峰)으로 꼽힌다)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서 나는 인간이 얼마나 오만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았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낸 그 어떤 위대한 창조물도 자연의 티끌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4,000미터 고지에 접어들자 나무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강한 바람이 분다. 산허리를 돌고 돌 때마다 장막에 가려졌던 새로운 봉우리들이 자태를 뽐내며 얼굴을 내민다. 가까이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다. 나는 히말라야의 속살을 보고 만지며 에베레스트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었다.

생애 처음으로 5,000미터 고지를 넘어 덩보체리 봉우리(5,083미터)에 도전했다. 산소가 평지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숨이 턱밑까지 차올랐다. 몇 번을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는지 모른다. 지난해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4,160미터)를 오를 때보다 훨씬 힘들었다. 덩보체리에서 내려다본 히말라야는 위아래 좌우 그 어디도 막힌 곳이 없었다. 봉우리들은 능선과 능선, 계곡과 계곡을 따라 커다란 원으로 이어져 있었다. 단절된 것이 아니었다. 하늘도 땅도 하나였다. 그 하나 속에, 동물과 식물이 함께하고 있었다. 동, 서, 남, 북, 너와 나의 구분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의 몫이었다. 나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름다움은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고 했던가? 해발 4,900미터 고지 로보체 롯지(lodge)로 가는 길, 그곳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 순백과 푸름이 조화를 이루고, 봉우리와 능선, 호수가 하나로 유연하게 이어져 있다. 그곳은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닌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다. 나는 로보체 한복판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목이 메었다. 눈물이 나왔다. 그리고 영영 소리 내어 울었다. 한참 동안을….

최종 목적지 칼라파트르를 눈앞에 두고 일행 중 2명이 고산 증세로 등정을 포기했다. 우리는 천금같이 무거운 발걸음을 화면에 비치는 슬로비디오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옮기며, 위로 또 위로 올라갔다. 히말라야 산군(山群)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왔다. 보이는 것은 검은 바위, 얼어붙은 하얀 눈, 회색 구름, 푸른 하늘. 그것이 전부였다. 바람만이 시시각각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도 바람 사이로 잠시 얼굴을 내밀고는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해발 5,560미터 칼라파트르 제1봉,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길이 끝나는 곳. 바로 그곳에 내가 우뚝 섰다. 네팔 도착 후 9일, 트레킹 시작 8일 만에 올린 쾌거였다. 나는 하늘을 향해 스틱을 든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금방이라도 하늘로 올라갈 듯이. 환희와 희열이 온몸으로 밀려왔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무엇이었다.

산행도 인생과 마찬가지로 왔던 길로 돌아간다. 우리는 고산지대로부터 도망치듯 서둘러 하산했다. 출발지였던 루크라로 귀환하는 데 단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카트만두행 비행기를 타고 문명사회로 돌아왔다. 이후 이틀 동안 나는 문명사회의 단맛을 한껏 맛보았다. 12일 만에 처음으로 머리도 감고, 면도도 하고, 몸에 비누칠을 하며 목욕도 했다. 먹고 싶었던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폭신평신했던 침대 위에서 단잠도 잤다. 마치 고향 집에 돌아온 양 포근함과 안락감에 젖어…。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했다. 내가 도망치듯 탈출해 온 바로 그 세계가 다시 생각났다. 티 하나 없는 파란 하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순백의 산군들, 코 끝에 스쳐가는 맑고 깨끗한 바람, 따스한 햇살, 얼음 아래로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 그리고 평온함. 순수한 자연의 세계가 그리워졌다. 그래서 나는 알았다.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원초적 본능이 내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일상으로 돌아온 나는 오늘도 회색의 도시에서 사람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목욕도 하며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가끔은 히말라야를, 에베레스트를 떠올리면서….

그러다 어느 날 원초적 본능이 강하게 되살아나면 나는 다시 배낭을 꾸릴 것이다.



흰 구름, 푸른 하늘. 여기가 어디인가



칼라파트르에서 바라본 히말라야 산군(山群)들

가업(家業)처럼 잇게 된 중재위원



1959년 필자의 돌 사진



1962년 집 마당에서 아버님과 필자, 동생과 외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1985년 아버님 제주대학교 총장 취임식때 찍은 가족사진
뒷줄 맨 왼쪽이 필자이고 옆으로 두 동생

아버님이 제주대학교 법과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중재위원으로 위촉되셨던 1983년, 나는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복학한 대학 4학년생이었다. 아버님은 속은 따뜻하시지만 겉으로는 유난히 무뚝뚝하시고 여간해서는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분이셨는데, 중재위원으로 위촉되시던 그날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기쁜 표정으로 식구들에게 위촉 소식을 알리셨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위원회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 더욱이 제주도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위촉한 직책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재위원 위촉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

그 후 30여 년이 흘러 필자가 중재위원으로 위촉된 날, 나는 아버님처럼 기뻐하기도 하였지만 혼자서 오랫동안 묘한 감정에 빠졌다. 작고하신 아버지와 똑같은 직책을 운명(?)처럼 맡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지만, 집안의 장남으로서 마치 중요한 가업(家業)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건대, 필자는 유년 시절부터 아버님께 유난히 반항적이었다. 암암리에 법적인 사고방식으로 훈계하시는 아버님께 “저는 아버님의 제자가 아니고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서 항상 대들었고, 법대나 상대를 가길 원하셨던 아버님의 뜻을 거역하여 인문학 쪽을 선택하였고, 은근히 중매결혼을 원하셨던 아버님의 뜻을 거슬러 연애결혼을 관철시키는 등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아버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렸기 때문이다.

사실, 법학을 공부하신 아버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언어학을 전공한 필자가 중재위원을 맡게 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학에 진학하여 집을 떠나 서울로 올 때부터 필자는 “드디어 아버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절없는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아버님의 삶과 필자의 삶은 전혀 다른 길로만 갈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런 과거가 있었기에, 아버님이 작고하시고 중재위원에 위촉되던 그날, 필자는 “아니, 내가 중재위원을 맡게 되다니?”라는 놀라운 감정과 함께 아버님과의 끊을 수 없는 부자의 끈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뜻하는 교량(橋梁) 마크 ‘ㄸ’이 필자와 필자의 아버님 사이에 놓이게 되었다는 기분이라까. 아무튼 그래서 중재심리에 참석할 때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아버님과 생전에 나누지 못했던 교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제 30주년을 거뜬히 넘어선 언론중재위원회, 그간 많은 위원회들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다른 위원회와 통합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언론중재위원회가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국가에 공헌하는 바가 컸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5월 어버이날에도 아버님 묘지를 찾아 이 글을 올리겠지만, 언젠가 저세상에서 아버님을 뵈었을 때에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화두로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더욱더 성실히 중재위원직을 수행하리라 다짐해 본다.



김재원 위원
제주중재부
제주대 통역대학원 교수

정금여 금강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아마 모든 직장인이 매일 반복하는 고민일 것이다. 딱히 떠오르는 메뉴가 없는 때에는 누가 좀 정해 줘야 싶은 곤혹스러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날의 기분에 따라, 날씨에 따라 혹은 함께 먹는 사람의 식성과 취향에 따라 적절한 음식을 고르는 일은 일상의 소소한 재미이자 즐거움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해 딸을 임신한 후부터는 문제가 달라졌다. ‘뭘 먹을까’가 아니라 ‘뭘 먹지 말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된 것이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습관처럼 마시던 커피 한 잔도, 스트레스가 쌓일 때 즐겨 먹던 매운 떡볶이도, 퇴근 후 남편과 TV를 보며 훌쩍훌쩍 마시던 맥주 한 잔도 모두 금기 음식 리스트에 올랐다. 무사히 출산을 하고 나면 그동안 참았던 음식들을 다 먹으리라는 희망과 기대로 열 달을 버텼는데... 이럴 수가! 출산 후 모유 수유를 위해서는 더욱 음식을 가려야 한다는 소식에 눈물을 머금었다.

그러나 산모가 먹고 또 먹어도 좋다는 음식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미역국이다. 2주간 지냈던 산후 조리원의 식단에는 한 끼도 빼놓지 않고 미역국이 나왔다. 집에 돌아와서도 약 한 달간 주 메뉴는 미역국이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매일 같은 음식을 먹다 보면 다시는 먹고 싶지 않다는 생각들이 법도 한데, 매일 먹는 미역국이 맛있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이만한 음식이 없다는 생각까지 드는 게 아닌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선 미역과 함께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국물 맛이 다르게 느껴졌던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다. 미역국은 소고기 미역국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홍합, 들깨, 전복, 조랭이떡 등등 수많은 재료로 변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재료에 어떻게 간을 하고 조리하느냐에 따라 맛의 차이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미역국에 담겨 있는 엄마의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다. 출산하기 몇 달 전부터 친정어머니는 산모에겐 미역이 최고라며 질 좋은 자연산 미역을 구해다 주셨고, 시어머니는 혼자 밥 챙겨 먹기 힘들 거라며 사흘에 한 번씩 직접 미역국을 끓여다 주셨다. 양가 어머니의 정성과 더불어 얼른 몸을 회복해 아이를 돌봐야겠다는 새내기 엄마의 의지가 더해지니 어떤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미역은 갈슘과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예로부터 산모의 필수적인 일상음식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풍습이 생긴 것도 엄마가 아이를 낳은 후 처음 먹는 음식이 미역국이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얼마 전 태어난 지 100일을 맞이한 아이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다. 매년 생일상에 놓여 있던 미역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미역국을 끓일 때마다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찢어졌다.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매해 돌아오는 아이의 생일 때마다 무사히 태어나 준 것에 감사하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을 가득 담아 미역국을 끓여 주어야겠다.



김정민
수시교육팀

언론중재위원회

「제1차 공무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오진완
서울시청 인력개발과
교육훈련팀장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2013년 제1차 공무원 교육과정」에 서울시 공무원 20여 명과 함께 참가하여 3월 7일부터 8일 양일간 교육을 이수하였다.

공무원들에게 언론이라는 수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책홍보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과제임이 분명하다. 때마침 언론과 시민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생각하며 서울시 공무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기대를 하고 교육에 임하게 되었다.

1일 차 첫 시간은 ‘언론현장 및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로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이 언론환경에서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특징과 현황에 대해 풍부한 자료와 분석으로 설명해 주어서 미디어 환경변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빅 데이터의 환경, 소셜미디어와 미디어 생태계의 진화는 계속될 것이고 이에 필요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언론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언론사 견학코스로 동아일보사에서 운영하는 신문박물관을 둘러보았는데 우리나라 신문의 130년의 역사와 발자취를 한눈에 조망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시대별로 전시된 신문들, 그 속에서 파란만장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고 당시의 중요 사건과 역사현장이 살아 있는 듯했다.

오후에 ‘공무원현장의 갈등·분쟁과 대체적 분쟁해결(ADR)’ 시간은 정준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이 강의해 주었는데 공무원현장에서 왜 ADR이 필요한지를 ADR의 기법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법원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조정과 중재를 통한 해결노력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합리적 방법이라는 메시지에 공감하였으며 공무원현장에서의 적용은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하였다.

2일 차 교육에서 송동헌 Strategy Salad 부사장이 ‘Social Media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주제로 아직도 공무원들에게 익숙지 않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나타나는 소셜미디어의 속성을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 아울러 정부기관의 소셜미디어에 대응하는 문제점으로 일방향이적이고 수직적 소통을 바라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등의 지적이 따끔하게 들렸다.

다음은 언론중재위원회 이재범 수시교육팀 차장이 ‘언론대응전략 및 언론피해구제’를 사례 중심으로 문답형으로 강의해 주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쉽게 이해되었으며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재인식하게 되었다.

마지막 시간은 ‘정책홍보와 설득의 스토리텔링’ 주제로 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가 다년간 기자 생활과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활동을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생한 지식을 전해 주었다. 보도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는 것인지, 홍보체계, 홍보전략과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다양한 사례를 섞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모든 시간이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내용이며 교육프로그램 설계에 많은 공을 들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더 많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런 전문 언론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홍보뿐만 아니라 언론보도 피해 예방 및 구제 방법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끝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을 위해 유익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주신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인터넷 카페가 코레일로부터 무리한 지원요구를 받았다는 보도, 반론보도 게재로 중재결정

A 신문사는 코레일의 다수의 지역본부가 국내 최대규모 인터넷 기차여행 전문 카페 회원들에게 수년간 각종 선물과 협찬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인터넷 기차여행 동호회 카페인 신청인 단체는 코레일 지역본부의 초청을 받아 여행을 다녀온 것은 사실이나 열차 경비 등의 기초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했고, 지역에서 받은 선물 또한 여행지의 홍보기념품이었으며, 5년간 지원한 내역이 역대에 달한다는 내용은 과장된 표현이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을 청구했다. 조정심리 과정에서 신청인과 언론사는 조정신청은 취하하고 중재신청에 합의함으로써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중재부는 기사에 신청인의 반론이 반영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반론을 게재토록 중재결정을 했다.

※ 중재는 신청인과 언론사가 중재부의 중국적인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초상권 침해 사례 | 과거에 찍은 사진 최근 기사에 동의없이 게재, 200만 원 배상

C 신문사는 온라인 도박 중독의 폐해를 보도하면서 내부 DB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검색해 게재했다. 신청인은 C 신문사와 같은 법인인 D 언론사에 과거 초상 사용을 허락한 바 있으나, C 신문사에 대해서는 초상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다. 중재부는 초상과 함께 신청인의 나이와 성씨 등이 게재되어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신청인이 C 신문사에 대해서는 초상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유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유재범 _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32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를 기치로 달려온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언론환경 속에서 언론중재위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존의 지상파방송 및 신문 외에 종합편성채널의 방송과 인터넷 포털의 기사 등 뉴스와 보도의 홍수 속에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대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쪼록 언론이 권력중속적이거나 사유화가 되지 않고, 비판적 기능을 유지하고 정부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가 좋은 길라잡이와 견인차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문승진 _ 임종우 조사관이 쓴 조정후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전에는 신청인들의 후기가 많이 올라왔는데 직접 조정을 담당한 위원회 직원의 후기를 읽는 것도 독자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조정 중에 생기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게 돕는 일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소송 건수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언론중재위원회처럼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원만한 해결을 이끄는 기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신청인을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설득한 것 역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불필요한 시간, 금전 낭비를 막기 위한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필요성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생생한 조정후기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범 _ 그동안 [언론  사람]을 읽고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테마가 다양하지 않고 내용이 다소 난해해 조금 아쉬웠는데, 이렇게 신 동의보감 코너를 통해 전문적이고도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잔인한 계절 4월을 맞이하여 황사나 알레르기고 고생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내를 청결하게 관리하기, 금연, 황사예보 발생 시 야외운동 삼가하기 등 일상생활에서의 황사대비법을 잘 실천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리라 다짐해 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교육프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ADR 교육과정 및 언론피해 예방 · 구제 교육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 · 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DR 전문 교육과정

현직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조정 · 중재 실무, 설득 · 협상 커뮤니케이션, 언론대응기법 등에 관한 실질적인 분쟁해결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 교육

언론피해구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은 조정 · 중재사례 및 법원판례 등 언론보도 피해 및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조정 · 중재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상 |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기업, 언론인, 대학(원)생 등

| 비용 | 무료

| 문의 | ADR 전문 교육과정 ☎02)397-3092~4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 교육 ☎02)397-3062~4

